

5월 가정의 달 특집 인터뷰

배은희 씨 가족 이야기

## “은지와 함께 사는 삶은 최고의 기쁨”

한 가정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한 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가정위탁보호’라고 한다. 위탁보호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키워가고 있는 배은희(48·제주시 우정로)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 주>



▲ 2015년도에 찍은 위탁보호 아동 홍은지(6·가운데) 양과 배은희 씨 가족사진.

▲ 위탁보호 계기는?

예전에 남편이 입양과 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어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대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 돌봄교사로 지내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집을 갖게 되면서 입양과 위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 좋은점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쁨’ 같아요.

은지가 처음 온 날부터 ‘엄마’라고 불러준 날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한데요. 특히 은지가 온 이후로 가족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은지를 중심으로 모이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가족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 힘들었던 점은?

은지를 키우면서 주변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네 형편을 생각해야지, 지금 그럴 때냐?” 등과 같은 시선과 말들이 상처로 남

아요.

위탁의 경우 입양과 달리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편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힘들어요.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위탁 보호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직은 위탁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저와 은지의 이야기를 담은 ‘아름다운 동거’라는 책을 썼어요. 위탁가정은 좋은 점이 많아요.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 등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의 계획은?

은지가 6살이 되면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 해요. 그럴 때마다 은지에게 이제 말을 해줘야 할 시기

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좋아하는 은지가 상처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지의 출생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과정, 자라나는 과정을 등을 담은 그림책을 은지에게 선물할 계획이에요.

<김승지 기자>

## 보호종료아동 월30만원 자립수당 첫 지급

제주도, 4월 19일부터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아 지난달 19일부터 처음으로 보호종료아동 74명에게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지원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시설퇴소 등 보호종결되는 아동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결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이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이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사례관리를 실시해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취업·주거·경제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자립수당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자립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군대 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국적상실, 사망, 실종, 가출,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	
■ 사회복지소식	4면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개원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기획	7면
"도내 전문성 갖춘 강사인력 양성 필요"	
■ 기획	8면
시설탐방 - 하소로지역아동센터	

## ‘사회복지현장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방법’

사회복지  
특별강연

‘문재인 대통령 구두’로 알려진 ‘사회적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의 유석영 대표를 모시고 사회복지특별강연을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9. 5. 16(목) 14: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2층) 삼다수홀
- 참석대상 :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나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 난치병 학생 교육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지난달 18일 도의회서 좌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지난달 18일 도의회에서 건강장애 학생 교육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좌담회에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교

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담회는 탐동 365의원 고병수 원장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난치질환 학생들이 치료 과정의 어려움을 물론, 각종 교육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 등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에 대한

여러 실태와 문제점들을 공유했다. 이번 좌담회는 난치질환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은실 의원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도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난치질환 학생의 지원 체계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최초라는 의미도 있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 나선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23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봉사자 발대식을 가졌다.<사진> 이 날 발대식에서는 제주 시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 지원팀과 김태규 외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관계 공무원, 고오봉 전기검침사업소 (주)제이비씨 부장, 화북의용소방대, 별빛누리 봉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대식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봉사자 기초교육과 사업 성과 점검 및 보고를 통해 사업의 취지 이해와 봉사단의 소속감과 활동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좋은 이웃들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소외된 우리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제주도에서는 2017년부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봉사자들과 함께 복지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 물적 민간

자원을 개발,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이웃들은 통반장, 부녀회, 가스검침원, 배달원, 경찰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반 주민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좋은 이웃들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064-702-4605) 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 찾아가는 보조기기 관리서비스 운영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 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제주영지학교(2일)와 제주영송학교(8일)에서 찾아가는 보조기기 관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보조기기 관리서비스는 이용자의 장애상태,

사용환경, 욕구에 적합하도록 보조기기를 수리하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업체연계 부족 등으로 겪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타이어, 튜브 등의 보조기기 소모품을 지원해 수리하는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전화(726-9669) 또는 홈페이지(jatc.c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도, 케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제주시(장애인 돌봄분야)와 서귀포시(노인 돌봄분야 예비형)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 총 29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고령화에 대비해 자립생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오는 6월부터 2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돌봄분야에 공모신청한 제주시는 올해 국비(8억 8700만 원)와 도비(8억 8700만 원)를 합해 총 17억 7400만 원을 투입한다. 노인 돌봄분야에 공모신청한 서귀포시는 1차 서면심사

에서 예비형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분야 연계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복지부 예산(추경)을 통해 선도사업 지역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전문가(제주사회복지 연구센터,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등)와 관련기관(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및 제주 권역재활병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사회 등 도내 보건의료 단체,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38개 기관단체), 양 행정시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심사과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방향(보건, 복지, 돌봄, 주거와 관련된 기관·전문가가 협력해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델 창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4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육208kg ▲유진상사=오투기식품 2,761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110봉 ▲JM상사=제과류 1,200개▲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176모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492개 ▲뚜레쥬르 제주 탐라점=빵185봉 ▲모양=빵444봉 ▲미인빵=빵77봉 ▲비엔누아즈=빵106봉 ▲일성식품=김치 80kg ▲정필이오메기=떡52개 ▲참새방앗간=떡708개 ▲파파무베이커리=빵56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80,000	26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1,000,000
자원봉사후원	705,000	705,000
복지사업후원	1,010,000	576,170
푸드마켓후원	2,995,000	159,980

\* 후원자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

## 도 장애인총연합회, 한라체육관서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부형중)는 지난 달 19일 한라체육관에서 '포용으로 꽃 피는 따뜻한 동행'을 슬로건으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재활의욕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및 가족, 장애복지 관련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사라난타, 차세나, 투맨크루, 윤세진 등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 유공자 27명에 대한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사진>

이와 함께 장애인생산품 홍보·판매, 휠체어·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개선해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시선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더불어 사는 공존의 제주, 배려의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푸드뱅크, 제2기 운영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는 지난달 11일, 송죽원에서 제2기 운영위원 위촉식과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2기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통해 이재성 위원(재밋섬파크 대표)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 및 부위원장 인원 조정, 당연직위원 명시 등의 지침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2019년 주요업무를 검토했다.

장= 이재성(재밋섬파크 대표) ▲위원= 박경섭(동부건설 대표), 안 성(금강축산유통 대표), 강기봉(기덕건설 대표), 김명중(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김미아(제주FM여행사 대표), 김영채(제주애(愛)기업협의회 대표), 김춘배(나이키 칠성로점 대표), 김형훈(미디어제주 편집국장), 배성우(오제이 대표), 송옥희(예담 이사장), 이승윤(사쿠라호텔 대표), 안희민(금강수산유통 대표), 장승남(아라온해수사우나 대표), 장행우(쌍용자동차 행운영업소 대표), 고준화(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장), 고원진(제주LED 대표), 고행익(네파 제주대리점 대표), 김남옥(노형동 적십자봉사회장), 김영환(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송창훈(삼무송창훈공인중개사 대표), 안순화(제주농업농촌 6차산업화지원센터장), 진양수(노형동주민자치위원회 사무차장) 이상 23명.

이재성 신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위원님들과 마음과 지혜를 모아, 나눔과 봉사를 통한 도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운영위원회 명단= ▲위원

# 광동제약·희망의 러브하우스 사회공헌활동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사)희망의 러브하우스(대표 양덕근)와 공동으로 지난 달 19~20일 양일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제주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사진>

해당 가옥은 고령의 어르신이 거주하는 제주 전통가옥으로 보수가 시급한 상황

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과 연령 등을 고려해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이 날 광동제약 임직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 직원, (사)희망의 러브하우스 자원봉사자 등 총 4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

은 주택 전반의 보수 공사를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광동제약 직원은 "봉사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의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제주도에 모여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주변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주 희망&나눔 집수리'는 광동제약이 2008년부터 (사)희망의 러브하우스와 함께 제주도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매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발달장애인전문가 교육 개설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라(이사장 최영열)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실무리더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제주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오는 5월

까지 진행된다.

최영열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중심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장애인복지 정책제안과 사회저변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복지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진으로 사랑을 전해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달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제13회 사랑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센터 홈페이지(www.jeju-foster.co.kr) 또는 이메일(jeju-foster@gmail.com), 우편(제주시 연삼로 22, 3층)으로 하면 된다.

작품은 디지털카메라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카메라 사진으로 1인 3편까지 가능

하다.

사진 제출 시 응모자 이름, 제목,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10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은 오는 6월 8일 열릴 예정이다.

# 아가의집 나들이 실시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화적십자봉사단(회장 정경자)은 지난달 24일 아가의집(시설장 방원팔) 장애인과 종사자, 평화적십자봉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일 나들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나들이는 그리스 신화박물관과 트릭아이박물관, 라운더마파크, 라온 ZOO체험 활동, 제주아트리움 공연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개원

## 지난달 15일 개원식...30여명 이용 가능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허재우) 개원식이 지난달 15일 개최됐다.<사진>

이 날 개원식에는 고희범 제주시장,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미·정민구·한영진·오영희·고은실·현길호·윤준광 의

원, 장애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천읍 북촌리에 연면적 380㎡에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문을 연 센터는 제주시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라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다.

센터에서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날 개원식은 희망나라풍물패의 길트기 공연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선언문 낭독, 경과보고, 유공자 시상, 인사말, 시설 현판 제막식, 시설 소개·라운딩 등으로 이어졌다.

센터 관계자는 “조천·구좌읍 장애인들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센터가 설립되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제주YWCA 통합상담소 폭력예방교육 실시

제주YWCA 통합상담소(소장 양금선)는 지난달 18일 제주하와이관광호텔 2층에서 호텔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도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YWCA통합상담소가 함께 추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체육계 종사자(체육선수 및 지도자)와 문화예술인, 그리고 민간기업 종사자, 지역사회성원, 지역소상공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폭력예방교육 홈페이지(예방교육 통합관리 <https://shp.mogef.go.kr>)또는 전화 (대표번호 1661-6005), 제주YWCA 통합상담소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 제주개발공사 감귤주스 26만병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지난달 9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제주희망협동조합 물류창고에서 ‘삼다수와 함께하는 감귤주스 나눔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은 사업비 전달 및 나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진행했다.

삼다수와 함께하는 감귤주스 나눔사업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감귤주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사

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 9400만원 상당의 감귤주스 26만2000여병을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전달하게 된다.



## 소/식/마/당

(무순)

### 직업 유지 프로그램 운영



혜정원장애인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오는 12월까지 장애인복지기금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직업유지를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타인과의 소통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이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 신체 근력 발달 기대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오는 12월까지 2년차 지적·자폐성장장애인의 집중력 향상 및 과잉행동 개선과 뇌병변장애인의 근력 발달을 위한 국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집중력 향상 및 과잉행동 개선과 신체근력발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민문화복지사업 개강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달 3일(김녕)과 4일(송당) 지역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주민문화복지사업 ‘팔팔나이, 팔팔한인생’ 개강식을 가졌다.

팔팔나이, 팔팔한인생은 경로당별 욕구조사를 통해 선정된 2개의 경로당에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각 20회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 진로탐색프로그램 실시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도내 일대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도내 청소년쉼터 연합으로 실시되었으며, 직업체험 등 여러가지 활동으로 이뤄졌다.

### 일상적인 생활 영위 도움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지난 2~3월까지 센터에서 노숙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모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노숙인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정신건강과 사고력 향상을 통해 본인들의 일상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일반인들의 일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기청정기 등 지원



한국전력공사 제주전력지사 사회봉사단(단장 문성창)은 지난달 19일 지속되는 미세먼지 속 주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기청정기와 식기세척기를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에 지원했다.

봉사단은 도내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장소에서 봉사활동과 적극적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미소를 전달하고 있다.

소/식/마/당 (무순)

바리스타과정 개강식 마련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달 13일 중·장년층 15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꿈꾸자!(꿈을 꾸는 자조모임)프로그램 중 바리스타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2019년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역주민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보람과 자신감을 찾고, 건강한 삶의 유지로 사회복지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문화예술·사랑나눔 행사 진행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양정심)은 지난달 10일 복지관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발생예방주간 및 인식개선주간행사'로 2019년 문화예술·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나눔공연 및 장기자랑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애인에게 유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서로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장이됐다.

도외 여행프로그램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2~4일까지 전라도지역 일대에서 시설 거주장애인 및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립생활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송죽원 관계자는 "이번 여행은 전라도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며 "또한 여행으로 여가활동의 욕구 충족과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축구교실 창단식 열려



비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훈)와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 샘솟는 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자)는 지난달 4일 서귀포시 삼다체육공원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창단식을 진행했다.

삼성꿈 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구교실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2회씩 운영되며, 유소년 축구 협회 전문 코치를 초빙해 다양한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치 담그기 행사 참여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14일 초아적십자가족봉사회(회장 한명숙)가 주관하는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는 정혜재활원 장애인과 초아적십자 회원들이 함께 200포기의 김치를 담그고 이야기도 나누는 즐거운 자리로 마련됐다. 초아적십자가족봉사회는 정기적으로 매해 4월경에 김치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원예활동 프로그램 호응



제주사라의집(원장 이상호)은 지난달 12일 사라의집에서 시설 이용 어르신 12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로율이 아름다운 백세인생을 위하여~' 프로그램 중 원예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원예활동(월 2회), 우드아트활동(월 2회), 미술활동(월 2회), 요리활동(월 1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 내 스트레스 해소



일배움터(원장 오영순)은 최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동안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국립횡성숲체원으로 2019 일배움터 직원 MT를 다녀왔다.

일배움터 관계자는 "이번 직원MT는 여가활동을 통해 평소 쌓여 있던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천연염색 프로그램 운영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원화자)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센터 이용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연염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의 빛을 담은 사람들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몰드리네 김미선 강사의 지도로 천연염색 중급 체험 프로그램인 제주뽕감과 쪽풀을 활용한 천연염색과 천연염색 원단으로 발, 파우치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도모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 (소장 김은영)는 지난 3월 29일 제주시청에서 제주시 청소년 8개 유관기관 22명의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 제주시 연합 아웃리치 '다시 청소년이다!'를 운영했다.

연합 아웃리치는 청소년들의 가출·학교 밖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의 유대를 통한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문화유산 체험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두호)는 최근 결혼이주여성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주4·3평화기념관과 전농로 제주왕벚꽃축제 탐방, 캔들 만들기 체험 등 제주문화유산 체험을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4·3희생자추념일을 맞아 4·3사건에 대한 이해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정화 프로그램 전개



제주몽생이그룹홈-제주소나이그룹홈(대표 김완숙)은 최근 제주4·3공원에서 초코파이봉사단과 그룹홈 입소 아동들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날 봉사단과 아동들은 4·3평화공원을 관람하고 4·3평화공원과 주변을 둘러보며 쓰레기 줍기, 분리수거, 자갈 줍기, 낙서 지우기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퇴소청소년 홈커밍데이 개최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소장 고민좌)는 최근 21주년 행사로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예비부부·부모교육과 나의 인생계획 세우기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퇴소청소년들은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연 1회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시론

## 서민의 먹을거리

먹는 온갖 것이 '먹을거리'다. 어감이 우리가 흔히 먹는 식감처럼 서민적이고 참 맛깔스럽다.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야 하니 먹을거리는 기본이고 삶의 근거다. '의·식·주'라 할 때, 둘째 서열이지만 실은 옷보다 먼저 밥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지 않은가. 밥이 최우선임을 말한, 딱 부러진 비유다. '준향전'에서 이몽룡도 월매 앞에서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했다. 그게 밥이다.

먹을거리란 말은 상류층 미식가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미식(美食)이란 식도락이라, 좋은 음식만을 가려서 먹는 것으로 말

### 영양을 고루 섭취해야

그대로 도락(道樂)이다. 도락은 재미나 취미로 하는 것이다. 되는 대로 먹는 서민들과는 다르다.

백세시대의 음식문화는 아무래도 먹을거리 쪽으로 흐른다 함이 옳다. 맛있는 음식만 가려서 먹어서는 장수라는 시대의 흐름에서 낙오될 우려가 다분히 있

다. 골라 먹는 건 편식이라 좋지 않다는 건 상식이다. 영양을 고루 섭취하려면 음식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육식을 피하고 채식을 하라하니, 채식만 하면 몸에 안 좋으니 육식도 빼놓지 말라느니 생활정보에 귀 기울이다 보면 여간 혼란스럽지 않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헛갈린다. 영양학에서도 명확히 대중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건가.

런던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채소와 과일을 하루 560g을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을 42%로 감소시킬 수 있다. 무병장수하려면 채소와 과일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것보다 2배 정도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암이나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도 25~31%로 줄었다는 것. 효과는 신선한 채소, 샐러드, 과일 순이라 하고, 과일은 일곱 가지 이상이라니 번거롭다.

나는 이런 연구 결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채소·과일'이라는 말만 뒤에 남는다. 별난 습

관이 있다. 끼마다 고기 없인 밥이 안 넘어간다. 아릿적 서럽던 가난에 한풀이하는가. 또 하나 비상식 아닌 게 있다. 매일 저녁 라면을 먹는다. 그것도 반쪽, 고

### 음식도 습관에서 비롯

기 몇 점에 쪽파 한 줌 넣고 끓여 훌훌 밀어 넣으면 끝이다. 스무 해도 더 됐지만, 아직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 자각증상이 없어 병을 키우는 건 아닌지 겁이 나기도 하나 괜찮다.

미식가는 아니나, 주전부리를 즐겨 챙기는 건지 모른다. 주로 고구마, 굴 등 서민의 먹을거리다. 탈 없이 산다. 음식도 습관인 것 같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기고

## 복지사각지대? 무조건 달려갈거야



류성철

표선면주민센터 주무관

헌법 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이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근거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수식이 질편한 시장경제의 생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듯이,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제도도 국민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에는 사회복지보장제도의 집행을 하는 주민복지팀과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이 생겨나게 되었다.

맞춤형복지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사례관리를 두 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먼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은 지역 내 자원 발굴 및 기획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러 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민간 자원이 전달된다.

여기에 더해 맞춤형복지팀과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민관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해 복합적이고 심도 깊은 접근을 필요로 하는 취약 가구에 대해 각종 자원 연계 및 상담 진행으로 집중 솔루션을 실시한다.

표선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표선면의 따뜻한 애기구덕(임산부) ▲영양듬뿍 밑반찬 나눔(거동불편) ▲일일나들이 동행(거동불편) ▲낙상예방사업(거동불편 어르신) ▲참말로 종수다(다문화가정) ▲행복나눔 희망뱅크(맞춤형 기부) 등의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각적,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표선면 협의체는 관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민관통합사례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민과 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 수 시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는 팀이다.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 없이 가까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찾아주길 바란다.

칼럼

## 복권의 양면성

얼마 전 미국에서 거금 8,570억 원의 행운을 거머쥔 파워볼 복권당첨자가 두 사람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 '복권'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인생역전(人生逆戰)이다.

사람들은 부(富)를 갈망하며 가난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실도피 심리가 작용한다. 궁핍하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신분 상승 기대감을 갖고 복권을 산다. 복권과 인생역전의 등식은 부를 갈구하는 인생의 무한한 욕망에 대한 장래의 기댓값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우연을 노린 허황한 꿈일지도 모른다. 복권 구입은 빈곤 탈출을 위한 경제적 이유지만 당첨 보장은 없다. 그러나 꿈을 꾸듯 복권이 당첨되어 백만장자가 되는 자가당착적 여유 심리를 가질 수 있다. 복권은 순수한 노력의 대가가 아닌 일확천금을 노리는 막연한 심리작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손쉬운 방법에 기대는 일확천금의 꿈은 사행심리(射倖心理)임이 틀림없다. 사행성은 인간의 허황한 꿈과 끝없는 욕망에 기인한다. 이 순간에도 인생역전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은 작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복권을 사고 있을 터.

### 사행성은 인간의 허황된 꿈·욕망 기인

우리나라의 복권은 1947년 올림픽 후원권 발행을 효시로 1969년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주택복권의 등장으로 정기발행복권 시대가 열린다. 본격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관광 개발 사업비를 마련키 위해 관광 복권을 발행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지방에서도 자치 복권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성을 최대가치로 지향하는 행정기관에서 사행성 복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에 모순된다. 복권의 사행성을 어떻게 공익성과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이다. 이는 복권기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합리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복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적절히 운영·관리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여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단일화했다. 복권의 종류도 6종으로 조정하고, 복권발행 개별근거를 폐지하여 이 법에 일원화했다.

사행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복권기금이지만 이를 사용하는 데는 철저히 공익사업에 투자된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에 투자된다. 복권의 사행성을 공익으로 승화시키는 일은 행정기관이 감당해야 할 공사가 혼재된 조성 행정의 한 영역이다.



문익순  
수필가

2019년도 사회복지교육 세미나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일시·장소 : 4월 23일(11:00)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

# “도내 전문성 갖춘 강사인력 양성 필요”

지난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시행한 바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요구 조사’ (책임연구원: 황성준 전문연구위원)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9년도 사회복지교육 세미나’가 지난 달 23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개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전문위원회(위원장 윤흥기)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교육요구를 확인하고 그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편집자 주>

황성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요구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1%(376명)가 직원의 직무관련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86.1%(348명)의 응답자가 교육훈련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직무전문교육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4%(155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현재 제주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7%(209명)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에 대해 황 전문연구위원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바라는 현장의 요구에 비해 현재 복지교육환경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직무전문교육의 질적 성장 필요, 실무에 활용이 가능한 직무중심 교육과정의 확대, 전문성 있는 우수한 강사진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황 전문연구위원은 ▲복지교육 훈련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역할 분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 수립 ▲사회복지



▲ 황성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시설 분야별 직무분석을 통한 교육 표준화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자체 교육역량 강화와 교육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강화 등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토

론이 이어졌다. 최만제 위원(세화요양원 사무국장은 “시설에서는 의무교육만 소화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흐름을 이용해 영리업체들이 교육을 상품화하는 우려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강사 인력 양성으로 시설 여건에 맞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희 위원(제주특별자치도장

## 교육정보 통합제공 포털 시스템 구축해야 의무교육 효과성 높이는 지원체계 갖춰야

인력종합복지관장은 “전문강사 인력풀(POOL)만 제대로 관리되어도 시설에서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내 복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전문강사 인력 관리체계를 협의회에서 갖춰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정인 위원(아가의집 사무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의무교육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다. 오히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전문교육은 서비스 교육이라고 본다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은경 단장(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의무교육만 받기에도 바쁘다.”며 “실

무중심의 전문교육 지원체계가 교육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미란 위원(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장) 역시 “강사인력 양성을 통해 의무교육은 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 외에도 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복향 위원(아라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협의회 등 교육기관에서 연중 교육계획 수립 시 직능별 요구사항을 사전에 수렴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해주면 현장에서도 직원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숙 부장(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은 “도내에 이미 전문강사 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복지현장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흥기 위원장(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장은 “최근에 도내에서도 유익한 교육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교육 포털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하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협의회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김승지 기자>



▲ 지난달 23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열린 ‘2019년도 사회복지교육 세미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설탐방

(104)하소로지역아동센터

# 아이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 지원 노력

## 2011년 문열어...아동 중심 복지환경 제공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간이 있다. 바로 하소로지역아동센터(센터장 오효선)가 그 주인공이다.

하소로지역아동센터는 학원과 놀이 공간 같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장전, 소길, 수산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 교육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만 해도 20명의 아이들이 이용했지만 지금은 학생수가 늘어나 28명의 아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오 센터장은 “이 지역의 경우 아직도 아이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적어도 아이들이 문화시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외도, 하귀, 신제주 등을 가야 된다.”며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복지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설립목적을 말했다.

특히 센터를 설립한 2011년도부

터 장전초등학교와 ‘학생복지 안전망 네트워크 협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9년째 꾸준히 상호 협력하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보호프로그램은 생활과 안전 두

### 9년째 장전초와 학생복지 안전망 네트워크 협약 보호·문화·정서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지로 개인위생부터 급식지도, 5대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은 기초학습부터 수준별 학습지도, 예체능활동(난타수업/티볼수업), 인성·사회성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수시로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의 문화체험 활동도 이뤄지고 있으며 관찰일지,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스스로 ‘아동자치 회의’를 열어 센터에 바라는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욕을 쓰지 않기 등 자신들만의 규칙을 선정해 실천하기도 한다.

오 센터장은 “부모와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 일상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전달 받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귀가지도 시 부모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등 자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센터의 노력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오 센터장은 “처음 센터를 올 때 밥도 잘 안 먹고 행동이 예민하고 거칠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니 밥도 잘 먹고 거칠었던 모습도 없어지면서 밝은 모습으로 변했다.”며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준다.”고 밝혔다.

또한 장전초등학교에서 감사장을



▲ 하소로지역아동센터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유수암리, 장전, 소길, 수산지역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기도 했으며 센터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을 우연히 만나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같이 가고 싶어한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한다. 부모들도 ‘고맙다’고 자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 등으로 차량운행을 수시로 해야 되지만 인력이 부족해 힘들다.

오 센터장은 “아동 한명 한명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는 가정의 환경도 중요하다.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며 “아동들이 속한 가정이 행복할 때 그 아동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가족지원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김승지 기자〉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60

### 개인정보보호 사례



#### ◆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3자 제공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력조회’를 문서로 요청해 오자 甲은 퇴직한 A씨가 재직기간 중에 받은 징계와 甲을 상대로 지방노동지청에 제기한 진정민원이 포함된 ‘전력조회회보서’를 乙에게 제공하였고 결국 乙은 A씨를 해고하였다.

A씨는 甲과 乙이 개인의 경력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력정보를 동의 없이 주고 받고 乙이 이를 인사자료로 이용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甲과 乙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며 甲이 제3자인 乙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甲이 乙에게 제공한 전력조회 내용에는 A씨의 경력사항과 징계사항, 지방노동지청에

진행 중인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乙은 A씨로부터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을 수집하고, 그 개인정보를 관련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았지만, 경력확인을 위해 甲, 乙간에 전력조회 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징계사항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진정사항은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따라서, 甲이 전력조회회

보서를 동의 없이 乙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乙 역시 동의 없이 甲으로부터 위 전력정보를 수집하여 인사자료 등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간에 근로자의 경력정보를 동의 없이 공유한 이 사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甲과 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 기관 모두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

사회복지사 A씨는 甲사회복지시설에서 퇴직한 후 乙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였다. 그 과정에서 乙이 A씨